

영광군, '농업현장 소통 강화'... 지원책 마련 주력

청년 간담회에서 자금 이차보전 건의 단순 지원 확대 아닌 지속가능 고민 교육·컨설팅, 생산시설 시책 건의도 "국비·도비 공모 등 적극 건의할 것"

영광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주요 농업현장을 방문해 농업인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애로사항 등을 취합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활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편성, 마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14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현장방문은 식량·원예특작·친환경·유통분야 등 농업 전 분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농업정책의 변화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후변화, 농촌인력, 농자재 급등 등 어려운 현실 속에서 후계농을 포함한 청년농업인들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는

평가다.

예고 없이 진행된 청년농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건의된 장기·저리 용자 확대, 청년 영농대행단 위탁운영,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등은 과거의 단골 건의사항이었던 단순 보조금 지원 확대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청년농업인들의 고민의 흔적이 돋보였다.

이어 블루베리, 딸기 연구회에서는 기후변화와 급변하는 소비시장에 대응해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교육·컨설팅, 고스펙 생산시설, 공동출하 확대 등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면서도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을 위한 시책을 건의했다.

친환경농업단지에서는 중앙정부의 핵심 정책을 정확하게 간파해 소규모 논농가공·유통시설, 보리·잡곡가공시설 구축을 건의하는 등 지금까지 단순 식량생산과 하드웨어적인 지원사업에 의존했던



장세일 영광군수가 최근 관내 농업 현장을 찾아 청년 농업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농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의 인식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군은 이번 현장 소통에서 건의된 내용을 국·도비 공모사업, 자체시책, 정책건의를 통해 빠짐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에 방

문,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역시 농업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농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도농상생 금요직거래장터 운영 농협광주본부, 매주 금요일

농협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가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와 생산자 판로 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다.

14일 농협광주본부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 우수농산물 판매 활성화와 광주 시민들의 경제적 소비를 위한 '금요직거래장터'를 농협광주본부 주차장에서 개장했다.

이번 금요직거래장터는 지역에서 생산된 100여종의 농축산물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홍보관 운영, 인절미나눔 행사, '행운의 농산물 롤렛판' 이벤트 등 다양한 경품 행사와 사은행사가 함께 진행되어 장터를 찾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현호 본부장은 "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며 광주시민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금요직거래장터를 통해 출하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소비자들에게도 더욱 사랑받는 장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여행코스 슷폼' 영상 공모전 화순군, 18일부터 접수 시작

화순군은 창의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SNS를 통한 효과적인 관광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나만의 픽! 전남 화순 추천 여행코스 슷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 있는 '숏폼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홍보 전략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30초에서 1분 이내의 짧고 감각적인 영상을 통해 화순의 대표 여행지를 매력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번 공모전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되며 화순 여행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화순으로 떠나고 싶어서 추천 여행 영상'으로 장르에 관계없이 화순의 다양한 관광지를 매력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참가자는 제작한 영상을 본인의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 계정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한 후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총 300만원의 상금이 걸린 이번 공모전은 심사를 통해 총 13편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대상(1편) 100만원, 최우수상(2편) 각 50만원, 우수상(3편) 각 20만원, 장려상(8편) 각 5만원(현금 또는 경품)이다.

조형재 화순군 관광체육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개성있는 시각으로 화순의 관광 명소를 발굴하고 SNS를 통한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많은 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화순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표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남도 담양서 한 달 여행하기' 담양군, 참가자 모집 하루 최대 10만원 지원

담양군은 지역의 숨은 명소를 탐방하며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남도 담양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담양을 포함한 전남 지역을 여행하며 남도의 맛과 멋을 체험하고, 담양의 숨은 관광명소와 맛집 발굴 등 여행을 즐긴 후, 후기 작성 및 홍보 글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제를 완수하면 1인당 1일 최대 10만원까지 숙박비와 식비 등 여행경비가 지원된다.

모집 인원은 9팀 내외로 광주, 전남 비거주자 중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여행 중 SNS 등에 담양 여행지에 대해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담양을 7일간 연속해서 여행해야 했지만 올해는 전남도 전역을 최소 7일부터 최대 30일까지 여행하는 일정 중 절반 이상을 담양에서 여행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담양군은 참가자들의 여행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총 4개의 권역으로 관광코스를 추천하고 있다. 관방제림, 죽녹원, 메타세쿼이아랜드를 포함한 담양을 권역, 면양정과 소재원 등 정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가사문학권역, 창평면 슬로시티 마을에서 느림의 미학을 체험할 수 있는 슬로시티권역, 영산강 시원인 용소가 있는 가마골 생태공원과 추월산을 탐방할 수 있는 담양호권역으로 나뉘어 취향에 맞는 관광을 진행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이메일(jeyun38@korea.kr)을 통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관광과 관광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많은 관광객이 담양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체류형 관광시장 활성화를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곡성군에 정착한 선배 귀농인이 새내기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곡성군, 귀농·귀촌인 생활기술교육 실시

곡성군이 귀농·귀촌인 농촌 생활 교육을 위해 생활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4일 곡성군은 귀농·귀촌인이 농촌지역 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술에 대한 생활기술교육을 배움으로써 안정적인 정착 계기 마련할 수 있도록 1년에 4회 교육을 운영하고 강사비, 재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8년 전 정착한 선배

귀농인이 새내기 귀농인 20명에게 트랙터, 관리기 이론 등을 교육하고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주재배 품목인 블루베리 농장 조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군은 올해 상반기 4회에 걸쳐 교육을 완료할 예정이며 교육 신청은 곡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 귀농귀촌홈페이지, 밴드,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목공예, 화훼, 염색 등의 교육도 추진된다. 다만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주민등록

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2025년 귀농귀촌 지역살리기 박람회'에도 담당자가 참가해 귀농·귀촌인 융화 및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교육 관련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새내기 귀농인이 이번 교육을 통해 농사기술을 습득함은 물론 귀농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화순군,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신고제 운영

오픈채팅방 통해 민원 접수

화순군은 14일부터 도로 등에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를 군민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픈채팅방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서비스에서 '화순군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을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 입장할 수 있다.

일상생활 중 차도, 보도 중앙, 점자블록, 횡단보도 위, 교차로 가장자리 등에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주차돼 있는 경우 발견 즉시, 위치, 현장 사진 등을 입력하고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신고가 들어오면 군은 해당 전동킥보드 업체에 통보를 통해 수거 또는 재배치 등 현장 조치토록 하고 그 결과를 채팅방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무면허 운전,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오픈채팅방에 신고 시 처리가 불가하므로 국민신문고 앱 또는 경찰서로 신고해야 한다.

방상열 화순군 도시과장은 "도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 신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을 통해 국민신문고나 콜센터에서만 처리되던 민원 절차를 간소화, 군민 불편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